



# 흑산 흥어, 왜 비싼가 했더니…

지난해부터 흥어잡이 어획량을 제한함에 따라 흥어가격이 경쟁 뛰어 보안대책이 시급하다는 어민들의 목소리가 높다.

21일 신안수협 흑산지점에 따르면 지난 19일 8kg(암컷) 이상 상품 흥어 한 마리 위판가격이 60만원을 출격 넘어 예년 같은 기간에 비해 40% 가까이 상승했다. 지난 9월에는 사상 최고인 74만원까지 치솟기도 했다.

어민들은 성수기인 요즘 예년 같으면 30만~40만원 정도면 쉽게 살 수 있었던 흑산 흥어값이 천정부지로 오른 이유에 대해 'TAC(총허용어획량) 제도' 시행과 금어기 설정 때문에 제대로 조업을 하지 못해서라고 답답해 했다.

**작년부터 '총허용어획량제도' 160t 잡으면 '스톱'**

**예년비 40% 최고 74만원까지 올라… 대책 시급**

흑산도 흥어잡이 어선 7척이 올해 잡은 수 있는 TAC는 160t. 처음 시행된 지난해와 똑같은 양이다.

그러나 올 상반기와 지난 8~9월에 흥어를 많이 잡은 어선 2척은 배정물량을 다 채워 본격적인 조업시기에 한 달 가까이 배를 세워 놓기도 했다.

다른 어민들도 겨울 성수기 때 잡을 고기량을 계산하며 조업을 제대로 하지 않아 흥어값 폭등의 원인이 됐다.

신안군 수협은 조업중단 우려와 함

께 가격폭등을 막고자 TAC 확보에 나서 추가로 25t을 배정받았다.

배를 끌어놨던 어민들에게 추가물량이 배정되면서 흥어잡이 중단사태를 막을 수 있게 됐지만, 본격적인 조업시기를 맞아 배정물량은 부족한 상황이다.

한편 흑산흥어는 7척의 어선으로 매년 3만8000마리를 잡아 35억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는 신안의 대표적인 특산물이다.

/서부취재본부=조원남기자 wncho@

수자원공 주암댐관리단  
사랑나눔 의료봉사활동



한국수자원공사(K-water) 주암댐 관리단(단장 이태영)은 (사)얼린의 사회와 함께 21일 주암댐 헤나눔복지센터에서 주암댐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랑나눔 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.

의료진과 자원봉사자 등 총 50여명이 참여한 이번 의료봉사는 댐 주변 지역 승주읍 주민 3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.

이번 의료봉사는 노인인구가 많은 댐주변 지역현실을 감안해 치과와 내과, 기정의학과, 산부인과, 한방 등 다양한 진료과목으로 진행됐으며, 환자 이동을 돋우 위한 차량지원과 침습식 사등이 함께 제공돼 호응을 얻었다.

이태영 주암댐 관리단장은 "이번 무료진료를 통해 댐 주변지역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그마 도움을 드려 보람을 느낀다"고 말했다. /송기통기자 song@

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 
www.kwangju.co.kr

## '부자 곡성 만들기' 총력전 펼친다

郡, 기차마을 유료화·장미 산업화 등 내년 사업 다채

곡성군이 장미산업화, 마을지정 전통식품 사업 등 내년도에 지역발전과 주민소득 창출을 위해 전 행정력을 기울인다.

곡성군이 추진하는 주민소득 창출 방안은 섬진강 기차마을 입장 유료화를 비롯해 ▲장미공원과 연계한 장미 산업화 ▲헛개나무 밀원수종 특화단지 조성 ▲농·특산물 연간 회원권 판매 ▲'목화마을 사람들' 브랜드화 ▲버자동화 유통공장 설치 ▲프리미엄 막걸리 개발 ▲민간기업 투자유치 활성화 등 다채롭다.

군은 올해 50여만명 등 해마다 섬진강 기차공원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공원내 입장료를 징수함으로써 유지관리비를 충당하고 관광소

득을 창출할 계획이다. 내년 1월 운영 조례를 개정해 입장권 매표소와 발권 시스템을 구축한 후 4월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예정이다.

또 내년 6월께 8억원을 투입, 섬진강 기차공원내 민자유치지역에 새마을호 객차를 활용해 열차펜션(10량) 숙박시설을 확충해 스쳐 지나가는 관광지에

서 체류형 관광지로 전환을 꾀한다.

내년부터 오는 2015년까지 양질의 밀 원수로 손꼽히는 헛개나무 특화단지를 조성해 양봉농장과 양봉농장을 펼친다.

한편 곡성군은 지난 18~19일 전남 과학대학 승지원에서 군의원 전원과 사회단체협의회·지역발전협의회, 군

읍면동 주민자치회·지역민족인권

위원회·여성인권위원회·여성인권

위원회·여성인권위원회·여성인권